

쇼콜라트리 'Le Chocolat de H' 주목 (몽상클레르)의 쓰지구치씨, 六本木에 오픈



일본 동경의 양과자점 (몽상클레르)를 운영하고 있는 쓰지구치씨가 지난 4월 말 롯폰기(六本木)에 쇼콜라트리 (Le Chocolat de H)를 오픈했다.

지난 해 8월, 롤케이크를 주요 품목으로 한 새로운 컨셉의 <지유가오카 롤케이크 전문점>을 오픈해 화제가 된 데 이어, 이번 초콜릿 전문점도 업계의 상당한 주목을 받으며 4월 점포 오픈과 5월 그랜드 오픈 행사를 마쳤다.

오픈 전부터 각종 매스컴의 취재 대상이 됐던 이 점포는 오픈 당일에는 개장 시간 전부터 점포 앞에 늘어난 행렬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Le Chocolat de H>는 'Only One'이라는 타점포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한정된 고급 제품을 공급하여 고객들에게 어필하겠다는 전략이다.

인테리어는 최근 레스토랑 리뉴얼에 있어 독특한 개성을 표현, 급부상하고 있는 업체가 시공해 점포의 컨셉과 제품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 표현했다. 초콜릿 매니아, 관련 업계 인사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는 이 점포는 롯폰기 힐즈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한다.

신선한 생과일에 초콜릿 코팅, '델리 초코' 화제의 신상품으로 주목받는 아이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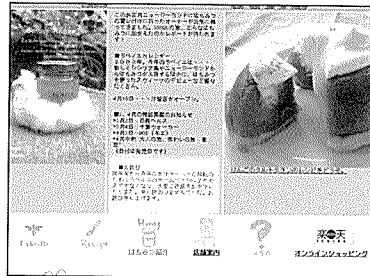
일본 동경의 유행을 선도하는 시부야(澁谷) 델리 타워에 지난 겨울 오픈한 '델리 초코(デリチョコ)'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점포는 과일류를 초콜릿으로 코팅한 상품을 선보여 인기를 얻고 있는 곳. 초콜릿 전문점 확대와 고급 초콜릿의 판매 증가세에 힘입어 시부야의 젊은 고객들을 타깃으로 오픈한 이곳은 직접 현장에서 제조하는 신선함과 식감이 살아있는 과일, 그리고 젊은 고객들을 목표로 한 적절한 마케팅으로 고객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판매 제품은 총 18종류로 생과일을 이용한 제품이 8가지, 건조 과일을 이용한 제품이 10가지다. 계절에 따라 그 종류는 다양화하고 있지만 다크 초콜릿을 코팅한 생바나나와 화이트 초콜릿을 코팅한 건조 망고는 계절에 관계없이 점포의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밖에도 컵 쿠키·초콜릿 비스킷·특별 소프트크림 등 20~30대 젊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만한 신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벌꿀 전문제과점 '라베이유', 汐留점 오픈 다양한 종류의 벌꿀 이용한 신제품 속속 출시

오기쿠보(荻窪) 본점을 비롯해서 동경에 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라베이유(ラベイユ www.labeille.jp)'가 지난 4월 신바시(新橋)에 시오도메(汐留)점을 오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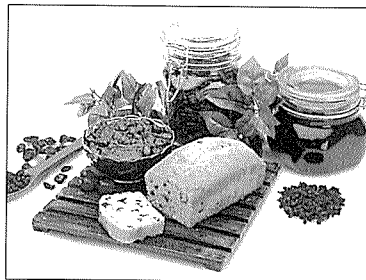


벌꿀 전문 양과자점으로 유명한 이 점포는 생산지 및 추출 방법 등을 달리한 여러 가지 벌꿀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타점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에 시티센터 1층에 오픈한 시오도메점은 유동인구가 많

고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발판으로, 고객 유치와 함께 점포 이미지 구축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로즈마리 벌꿀을 이용한 푸딩, 프루츠필과 벌꿀을 잘 조화시킨 구운과자 등 타점포에서는 맛볼 수 없는 벌꿀 맛이 적절히 녹아있는 제품들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美國, '크랜베리 심장병 예방' 보고 발표 폴리페놀 다량 함유, 하루 3잔이면 예방



세계 최대의 화학학회로 유명한 America Chemical Society가 지난 3월 제225회 전국대회에서 크랜베리가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항산화성분이 풍부한 주스류의 심장병 예방에 대

한 논의는 결론없이 끊임없는 의견차를 보여온 주제, 따라서 임상 실험까지 뒷받침된 이날의 발표 내용은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보고서의 임상 실험을 진행한 펜실베이니아주의 스크랜튼대학의 화학교수인 조 빈슨 박사는 "크랜베리 주스를 하루 3잔만 마시면 혈액 중의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 혈장 항산화 레벨을 높이고 심장병에 대응하는 예방 효과가 생긴다"고 실험 결과를 보고했다.

198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검사는 첫 1개월 동안 하루 1잔, 다음 달에는 하루 2잔, 3개월째에는 하루 3잔의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도록 진행됐다. 실험 결과, 1~2잔의 크랜베리 주스로도 수치가 상승한 경우가 있었으나, 총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HDL 콜레스테롤 수치의 상승이 보편화되어 나타난 것이 하루 3잔의 주스를 마셨을 경우, 이때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평균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작용이 폴리페놀에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크랜베리는 기타 각종 과일류에 비해 폴리페놀의 함유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